[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]

2015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

목 차

1. 2014년 중소기업 경기 동향 ····· 1

2. 2015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····· 4

3. 2015년 중소기업 대출시장 전망 ····· 7

IBK경제연구소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1 2014년 중소기업 경기 동향



□ 만성적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, 3중고에도 시달렸던 한 해

○ '06년부터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하회하며 내수부진이 지속

※ 실질 GDP성장률 : 3.7('11)→2.3('12)→3.0('13)→3.9('14.Q1)→3.5(Q2)→3.2(Q3)
※ 민간소비 증가율 : 2.9('11)→1.9('12)→2.0('13)→2.5('14.Q1)→1.5(Q2)→1.6(Q3)

○ 다른 한편으로, China Inside와 엔저 본격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

-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China Inside의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 감소가 올해부터 본격화

※ '14년 중소기업 對중국 수출 증가율(전년동월대비, %)
: △2.6(4월)→△16.8(5월)→△6.8(6월)→△6.9(7월)→△4.6(8월)

-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100엔당 900원대의 엔저시대가 도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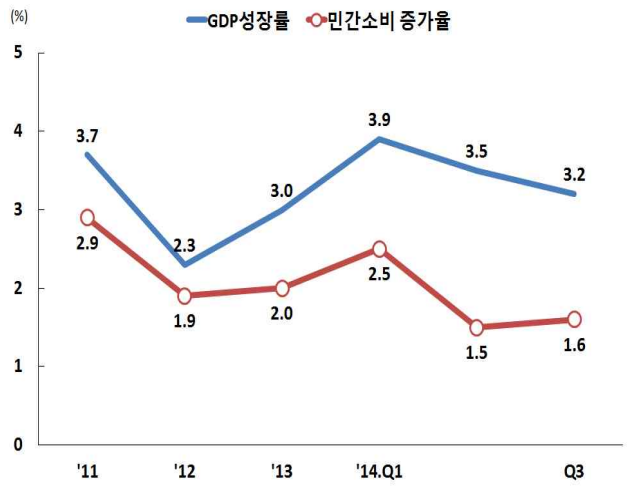
※ 원/100엔 환율 추이(분기평균) : 1,058('13.Q4)→1,040('14.Q1)→1,008(Q2)→989(Q3)

○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도약으로 우량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어 협력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이 전이되는 양상

- 한국의 주력산업인 전자, 조선, 화학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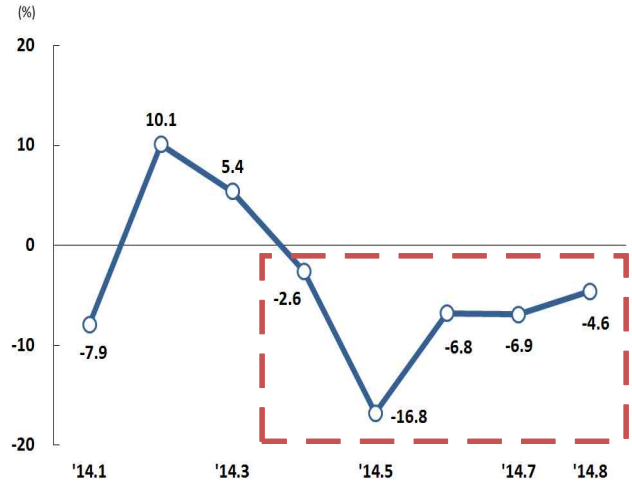
※ 누적영업이익 추이('13.Q1~Q3→'14.Q1~Q3, 조원)
: 삼성전자(28.4→19.7), 현대중공업(0.89→△3.23), LG화학(1.43→1.08)

GDP성장률 vs. 민간소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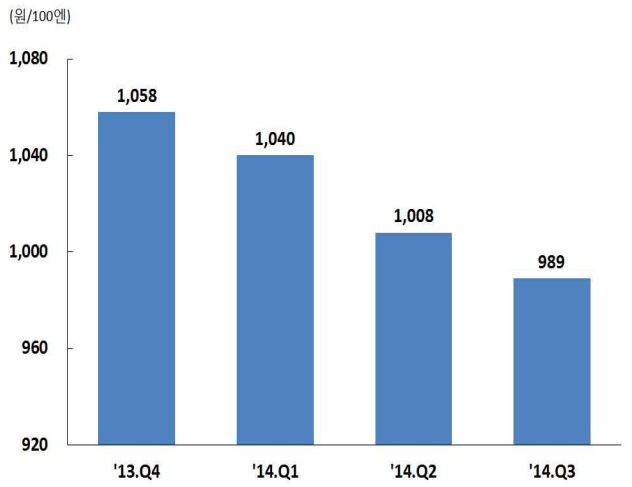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중소기업 對중국 수출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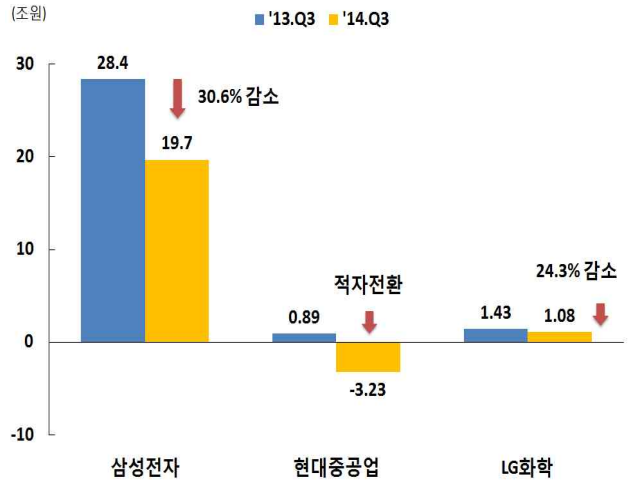
주 : 전년동월대비
자료 : 중소기업청

최근 원/100엔 환율 추이



주 : 분기평균
자료 : 한국은행

대기업 영업이익



주 : 1~3분기 누적, 연결재무제표 기준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

□ 이러한 대내외 환경악화로 중소기업의 생산, 가동률, 수출 부진이 지속

○ 생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하였을 뿐만 아니라, 가동률도 하락

- 중소기업 생산은 '10년 이후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반전

※ 생산증가율(%) : △2.8('10)→12.6('11)→1.4('12)→4.6('13)→<u>△0.8('14.1～9월)</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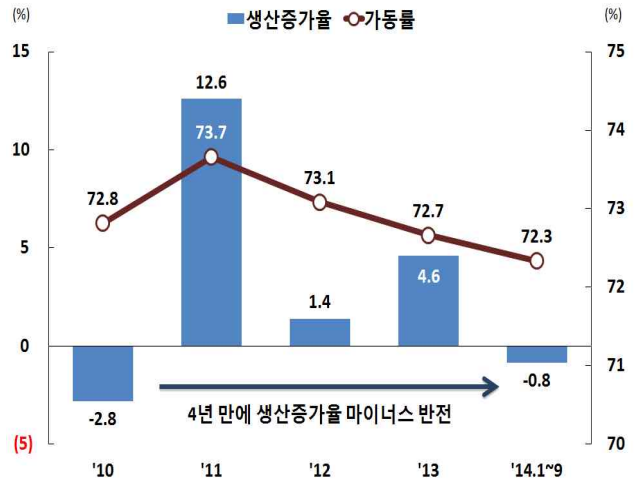
- '11년부터 이어진 가동률 하락 기조가 '14년에도 지속

※ 가동률(%) : 72.8('10)→73.7('11)→73.1('12)→72.7('13)→<u>72.3('14.1～9월)</u>

○ 수출은 상반기 1.3% 증가에 그쳐 연간 수출액이 '10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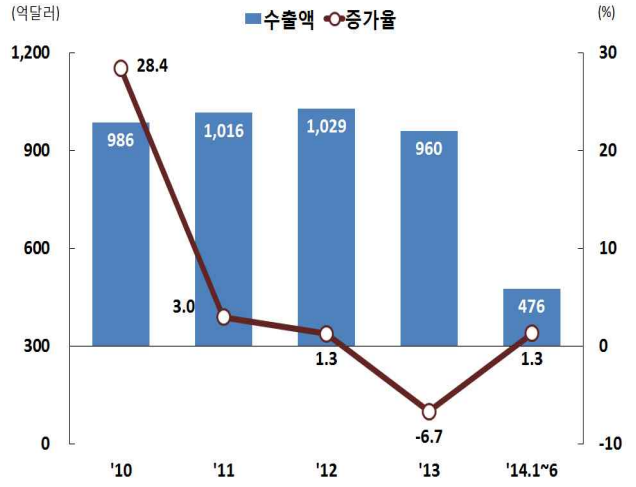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 수출은 4년째 정체 상태

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



주 : 전년동기대비
자료 : IBK경제연구소

중소기업 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기대비
자료 : 중소기업청

□ 요약하면, 금년은 내수 부문은 부진하나 <u>수출 홀로 외끌이 성장</u>을 이끌어 갈 것으로 당초에 전망하였으나, China Inside와 엔저의 공습으로 <u>수출마저 부진</u>하면서 중소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된 한 해

2 2015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

"내년도 중소기업 경기는 끌고 갈 말이 없는 마차"

□ 중소기업을 괴롭혔던 (내수부진 + 3중고)가 더욱 심화되는 한 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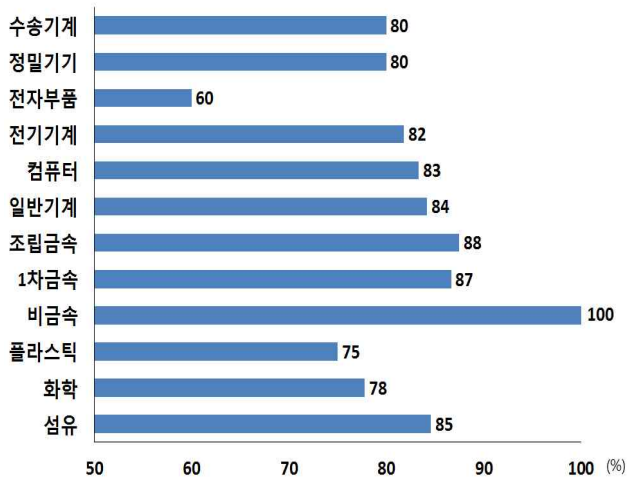
○ China Inside의 심화로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이 본격화

- 소재·부품 188개 품목 중 126개 품목이 '06년 대비 對중국 비교우위가 악화되었고, 106개 품목은 비교열위인 상태

- 중소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·전자 업종에서 더 큰 피해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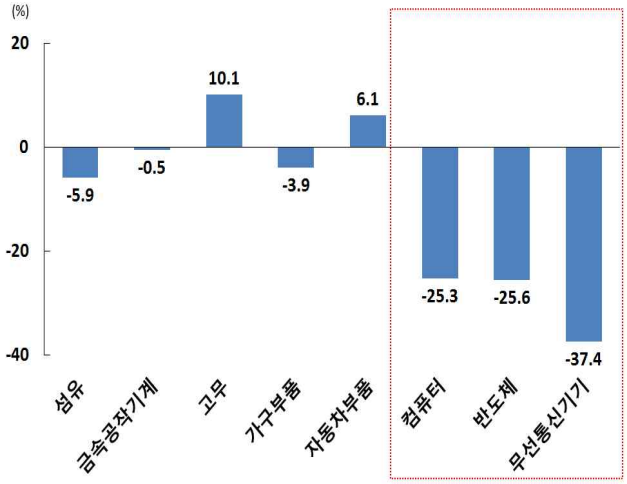
※ 중기 對중국 수출 증가율('14년, %) : 컴퓨터(△25.3), 반도체(△25.6), 무선통신기기(△37.4)

對중국 비교우위 악화·열위 품목 비중



주 : 업종별 총품목 수 대비 비교우위가 악화되었거나 비교열위인 품목 수의 비중
자료 : IBK경제연구소

품목별 중소기업 對중국 수출 증가율



주 : '14.1~8월 누적, 전년동기대비
자료 : 중소기업청

○ 엔저로 향상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

-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본원통화 확대로 인해 엔화 약세가 더욱 심화될 전망

※ 일본 GDP대비 본원통화(%) : 29.2('12)→42.2('13)→55.4('14)→70.4('15e)

- 일본기업들의 설비·R&D 투자로 인한 경쟁력 향상의 영향이 가시화

※ 설비투자 증가율(%) : △3.9('13.Q1)→0.0(Q2)→1.5(Q3)→4.0(Q4)→7.4('14.Q1)→3.0(Q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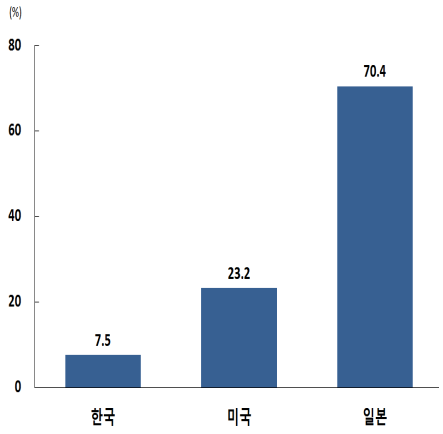
※ R&D투자(억엔, '12→'14) : 도요타(8,074→9,600), 도시바(3,049→3,700), 혼다(5,602→6,450)

주요 IB 원/100엔 환율 전망

IB	'15e
Wells Fargo	964
SC	905
Morgan Stanley	952
HSBC	955
Commerzbank	833
Maybank	937
평균	9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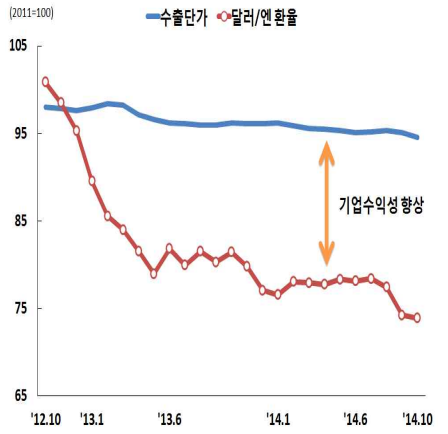
주 : 연말기준('14.10월 전망)
자료 : Bloomberg

GDP 대비 본원통화 비중



주 : 한국, 미국('14), 일본('15e)
자료 : 각 국 중앙은행

수출단가와 달러/엔 환율



주 : '11년을 100으로 지수화
자료 : 일본은행

○ 국내 대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납품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영 악화 가능성이 상승

- 최근 실적이 악화된 A전자 협력중소기업의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

- 납품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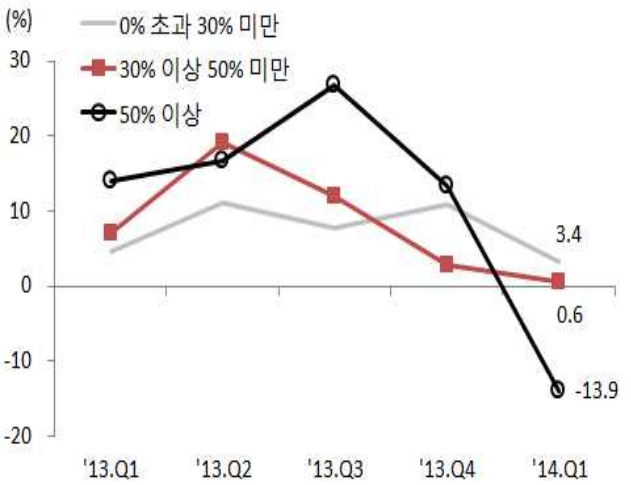
※ 납품의존도별 매출증가율(%, '14.Q1) : 3.4(30%미만), 0.6(50%미만), △13.9(50%이상)

A전자 협력업체의 매출액 추이

기업	'13.Q1	'14.Q1	증감률
A	2,734	1,903	△30.4
B	2,273	1,792	△21.2
C	1,505	1,191	△20.9
D	1,586	901	△43.2
E	668	477	△28.6
F	439	241	△45.1

주 : 연결재무제표 기준, 단위 : 억원, %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

A전자 1차 협력업체의 납품의존도별 매출증가율



주 : 납품의존도는 '14.Q1 기준,
자료 : IBK경제연구소

□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될 가능성

○ 실질임금 정체, 조세부담 증가 및 전세난 심화 등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제한적

- '12년부터 둔화된 실질임금 상승률이 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.3% 증가에 그침

- 전세난 심화에 따른 가계부채 상승과 간접세 증가도 소비에 악영향

※ 가계부채(조원) : 843('10)→916('11)→964('12)→1,021('13)→1,040('14.Q2)

○ 중소기업들도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설비투자 확대에 소극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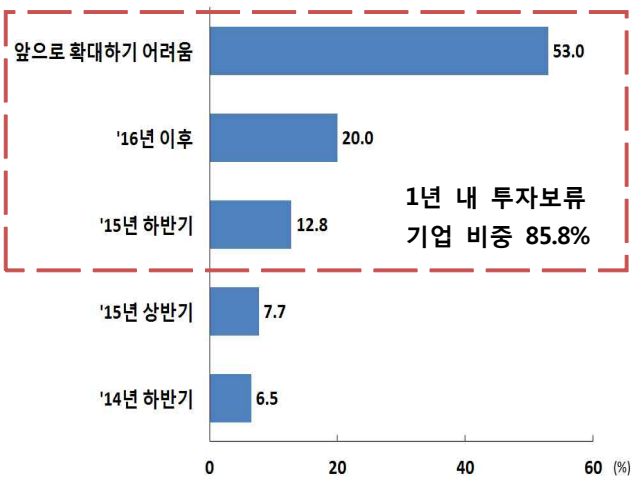
※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 시점 전망(IBK경제연구소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조사)
: 앞으로 확대하기 어려움(53.0%), '16년 이후(20.0%), '15년 하반기(12.8%)

실질임금 상승률



주 :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. 전년동기대비
자료 : 한국은행, 고용노동부

중소기업 설비투자 시점 전망



주 : 중소제조업 설비투자전망조사('14.7월)
자료 : IBK경제연구소

□ 따라서 중소기업 전반의 위기 가시화를 전제로 한 정책지원, 금융지원 및 산업전략 측면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

3 2015년 중소기업 대출시장 전망

□ (현황) 사상 최초로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500조원을 돌파

○ 중소기업 대출은 2년 연속 6% 이상 증가하여 '14.9월에 잔액 502조원을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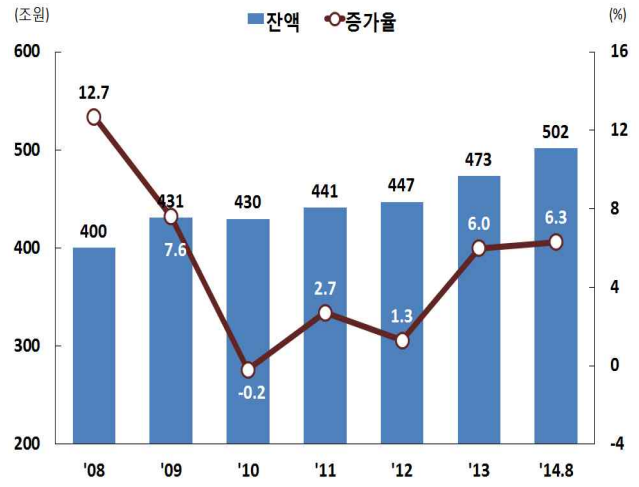
※ 대출잔액(조원) : 441('11)→447('12)→473('13)→502('14.9월)

※ 대출잔액 증가율(%, 전년동기대비) : 2.7('11)→1.3('12)→6.0('13)→6.3('14.9월)

○ '14.9월까지의 대출순증이 이미 '13년 연간 규모를 초과하였으며, 연중으로는 '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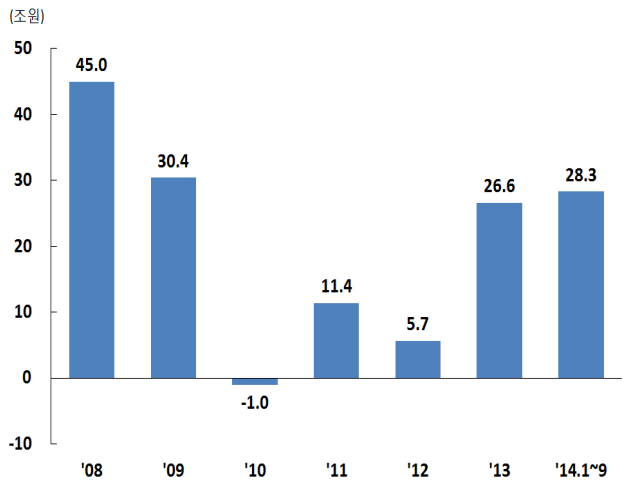
※ 대출순증(조원) : 11.4('11)→5.7('12)→26.6('13)→28.3('14.1~9월)

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증가율



주 : 원화대출금, 전년동기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중소기업 대출순증 비교



주 : 원화대출금, 전년말 잔액대비
자료 : 한국은행

□ (원인) 중소기업 대출확대에 대한 3자(기업, 은행, 정부)의 이해관계가 일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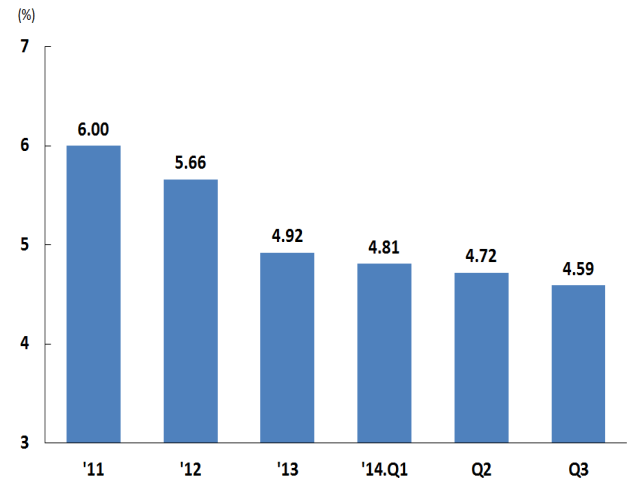
○ (중소기업)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1분기에 정점에 도달

-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이 감소

※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(%) : 6.00('11)→5.66('12)→4.92('13)→4.59('14.Q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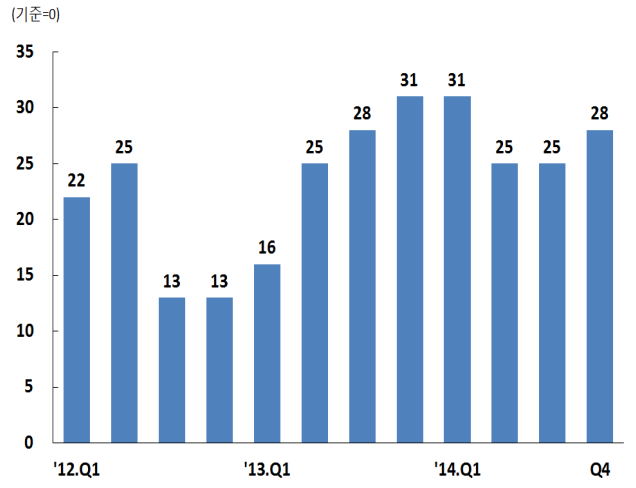
-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자금 확보 수요가 증가

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



주 : 신규취급액 기준
자료 : 한국은행

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



주 : '14.Q4는 전망치, 나머지는 실적치
자료 : 한국은행

○ (은행)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익영역으로 인식하면서 대출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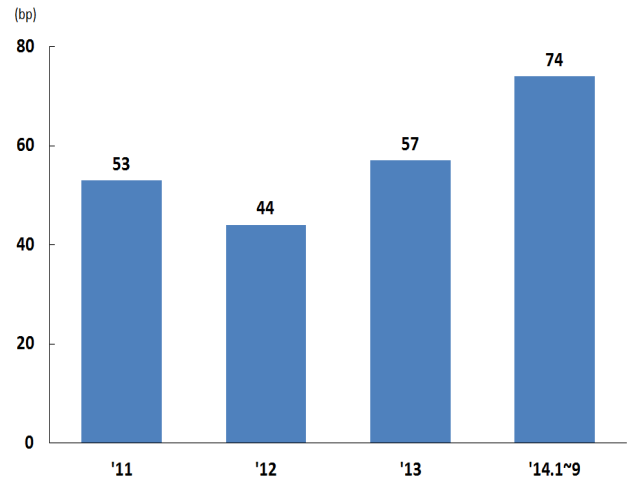
- 대기업 부실이 지속되고, 가계부채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, 중소기업 대출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개선

※ 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차이(bp) : 44('12)→57('13)→74('14.1~9월)

- '13년부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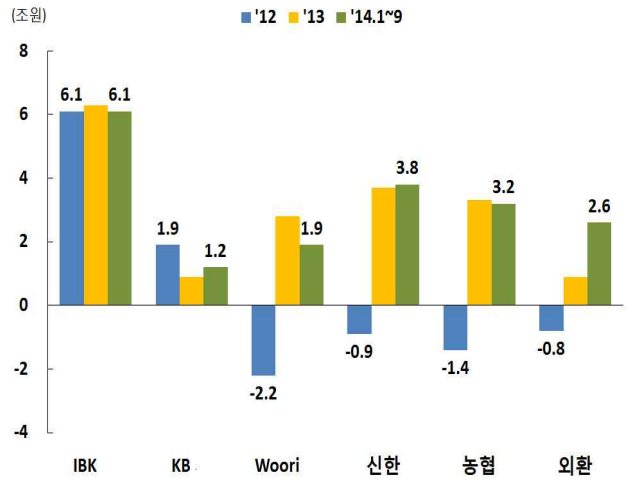
※ 중소기업 대출 순증('14.1~9월, 조원) : IBK(6.1), 신한(3.8), 농협(3.2), 외환(2.6)

중소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차이



주 : 연평균 대출금리
자료 : 한국은행

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순증



주 : 원화대출금 기준
자료 : 한국은행

○ (정부) 기술금융을 도입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확대

- 내수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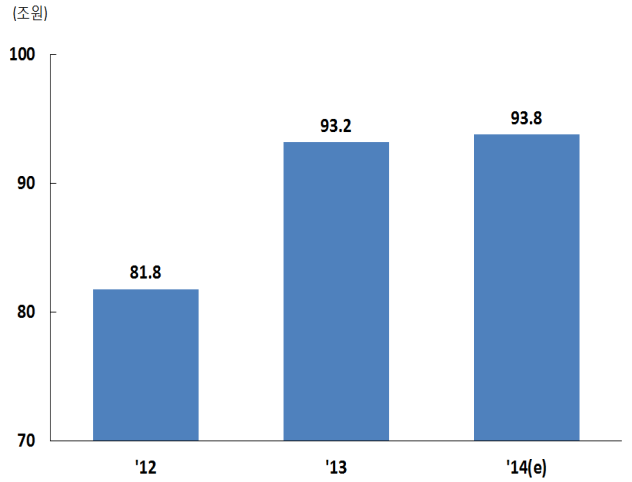
※ 정책금융* 규모(조원) : 81.8('12)→93.2('13)→93.8('14e)

*구성('14년, 조원) : 정책자금(3.8), 신보·기보(58.2), 지역신보 (17.8), 매출채권보험(14.0)

- 또한,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독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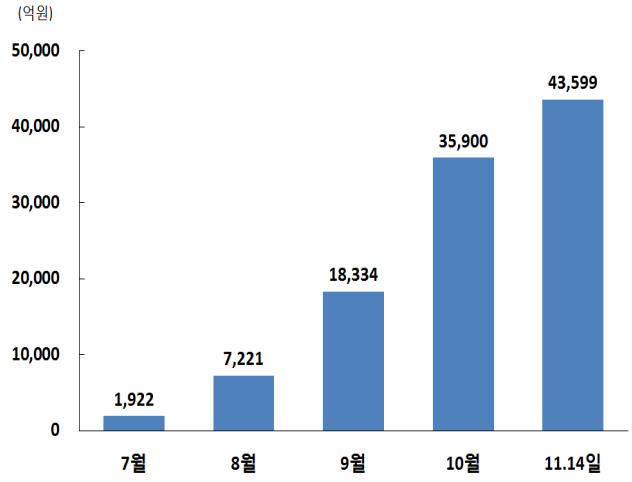
※ 기술신용대출 잔액(조원) : 0.19(7월)→0.72(8월)→1.83(9월)→3.59(10월)→4.36(11월)

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



주 : 정책자금, 보증, 매출채권보험 포함
자료 : 중소기업청('14년 1차 중기 금융지원위원회)

기술신용대출 잔액



주 : 월말잔액기준
자료 : 은행연합회

□ [전망] 3자의 사정이 엇갈리면서 숨고르기가 이루어질 한 해

○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고,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자금수요는 둔화

- 지난 2년간의 집중적인 자금공급 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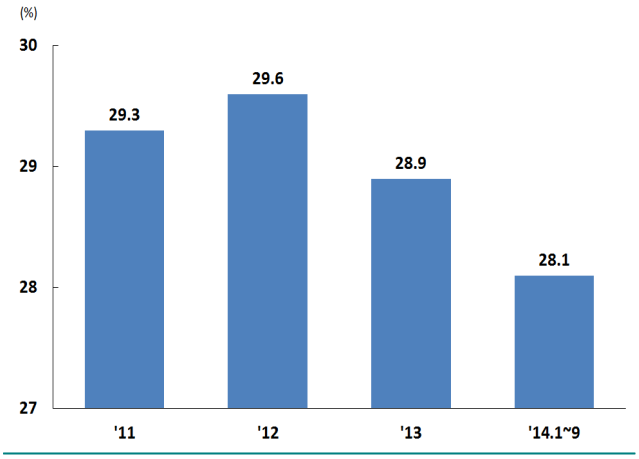
※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(%) : 29.6('12)→28.9('13)→28.1('14,1~9월)

- 투자처 부재로 인해 자금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

※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(월평균, %) : 16.8('12)→16.6('12)→16.1('13)→15.4('14,1~9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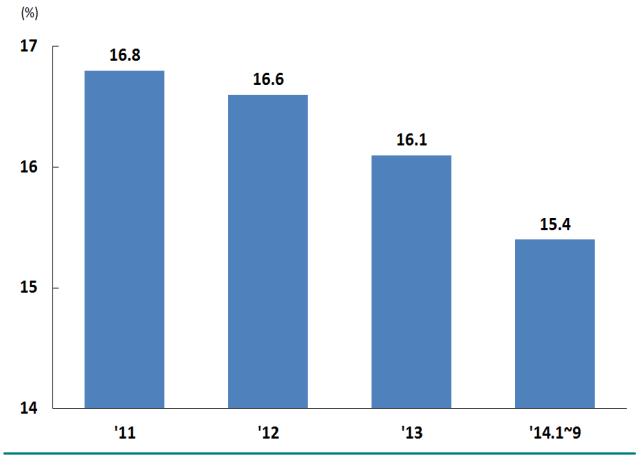
- 다만, 내수부진과 수출환경 악화가 지속될 경우 비우량 중소기업의 긴급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상존

중소제조업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



주 : 연간 평균
자료 : IBK경제연구소

월평균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



주 : 연간 평균
자료 : IBK경제연구소

○ 내년에는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건전성 관리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

- 올해 들어 이미 주력 제조업에서 부실 중소기업이 크게 증가

※ 업종별 구조조정 대상 기업('13→'14) : 제조업 전체(53→76), 전자부품(6→14), 기타 운송장비(3→8), 플라스틱(1→7), 자동차(1→6)

-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도 3분기 연속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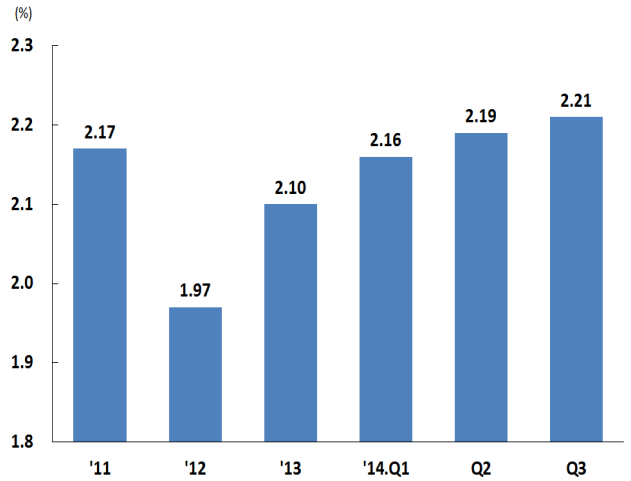
※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(%) : 1.97('12)→2.10('13)→2.16('14.Q1)→2.19(Q2)→2.21(Q3)

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



주 : 세부평가 대상은 3년간 영업현금흐름 적자, ICR 1.0 미만, 자산건전성 요주의 기업
자료 : 금융감독원

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



주 : 분기말기준('11~'13년은 연말기준)
자료 : 금융감독원

○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

-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인 7.9조원이 편성

※ 예산 증감('14→'15e, 억원) : 일반예산(△719), 중소기업 기금(1,344), 소상공인 기금(8,246)

- 직접적인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유망 내수중소기업의 해외진출, 기술혁신 및 창업 등과 같은 혁신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

2015년 중소기업 지원예산(안)

구분	'14년	'15년	증감
일반예산	1.96	1.89	△0.07
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	3.87	4.00	0.13
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	1.18	2.01	0.83
합계	7.01	7.90	0.89

단위 : 조원
자료 : 중소기업청

중소기업 혁신지원 강화

구분	주요 정책
수출기업화	· 내수유망기업 수출지원 · 가젤형 기업 500개 지원 · 해외규격 인증 지원
기술혁신	· Pre World Class 신설 · 뿌리기업 전용 R&D 신설
창업활성화	· 창업선도대학 확대(21→28) · 창업인턴제 시행(120명)

자료 : 중소기업청

□ **요약하면,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내년에도 확대되겠지만, 중소기업과 은행의 수급요인으로 인해 올해보다 순증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**